

BOOK REVIEW

서 평

현대심리치료법

현대심리치료법

Modern Tsychotherapiest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 저,
이관직 역, 총신대 출판부, 1994.

배영태

인간이해 및 정신과정에 관한 학문인 심리학을 영혼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는 기독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조적인 학문인가, 배타적인 학문인가.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와 심리치료가들 특히 크리스찬 상담가, 심리치료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는 심리학은 인간관을 비롯한 이론적 가정들이 자주 인본주의에 터하고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Lordship을 인정하고 그에게 헌신하려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처했을 때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기도나 높은 윤리적, 율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치 못함을 인정해야 하고, 심리학의 이론적, 학문적인 접근을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본 서는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저자들은 전체 내용을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양한 심리학과 심리치료 이론의 종교적 의미를 고찰하고 심리학과 기독교적 신앙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여러 심리학 이론과 심리치료 요법들

을 분석하고 비평하며, 그것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지적하고 교회에의 적용 시 취할 점과 버릴 점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본 서는 심리학과 기독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그러나 이 대화는 대화의 한 쪽 면, 즉 기독교적 신앙이 진리로서의 궁극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저자들은 현대의 심리학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성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불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영적이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위해 단지 기도만 해 준다면, 그들의 영적인 민감성을 촉진시켜 준다면, 또는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종교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 또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게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불완전한 심리학과, 심리치료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조심스럽게 제시한 방법의 이론적 기저는 기독교임을 강조하였고,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심리학과 심리치료 이론을 보다 균형 있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평가하려 했음을 전체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런 저자들의 노력은 심리학, 심리치료이론을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아무런 비평없이 모든 것을 쉽게 포용하려는 크리스찬 상담가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 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부분은 서론적의 제1장, 제2장으로 기독교적 신앙과 심리학을 연결·종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런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기독교적 신앙이 소위 과학적인 심리학, 심리치료 분야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의 핵심을 밝힘으로써 본 서의 논리적 기초를 세우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3장에서 제14장까지로 심리학, 심리치료 이론의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큰 네 가지 패러다임, 즉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역동심리학, 인지 - 행동 심리학, 실존주의를 비롯한 인본주의 심리학, 가족요법의 큰 틀에 맞춰 살펴보고 있다. 각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철학적 가정들, 인간관, 건강한 인간상과 비정상성의 모델을 제시하며 건강한 인간상 확립

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다양한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기법들에 대한 방대한 고찰을 끝맺으면서, 심리학의 이론과 심리치료의 모델들은 기독교와 양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신앙과 융화될 수 없는 비양립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바로 이 점이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어떤 이론이나 모델들도 크리스찬 상담가나 심리치료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된다.

세 번째 부분은 제15장, 제16장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 결론 부분에서 저자들은 서두에서 제시한 기독교적 신앙과 인간의 학문인 심리학, 심리치료 분야와의 연결·종합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해답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의 모델을 확립하려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유일한 확정적인 모델은 없다고 하며 독자들을 맥빠지게 했던 탐색 여행이 완전히 무모하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밝혀준다.

저자들이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취사선택주의’이다. 이것은 다양한 심리학, 심리치료 접근방법들로부터 기독교적 신앙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의 선택과 배열, 질서있는 혼합의 방법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이 취사선택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자칫 상호적으로 모순적인 개념들과 기법들을 혼합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내담자의 문제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는 이른바 ‘비이론적인 혼합주의’로 끝나버릴 수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관점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른바 ‘이론적인 종합회주의’로 지칭되는 것으로, 이것은 상담자나 심리치료자가 전형적으로 어떤 선호하는 이론을 자신의 틀로 사용하면서, 하나 이상의 새로운 접근법들의 일부를 동화시켜 그 기초적인 접근법들을 확대시키고 풍부하게 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저자들의 이 결론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주장은 심리학, 심리치료 이론의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들이 모두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모델들은 사용하려고 할 때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저자들은 많은 심리학, 심리치료 이론 중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가정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리역동적 접근법(제4장), 인지 - 행동적 요법(제8장)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모델들은 크리스찬 상담가나 심리치료가들의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한 체계적인 변화과정을 요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 서는 크리스찬 상담가나 심리치료가들이 그들의 전문적인 일 속에서 만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상담 혹은 심리치료의 전문적인 면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질 것과, 그 일을 통해 인간과 교회를 향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철저히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위 과학적인 심리학, 심리치료이론을 아무런 비평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혹은 그 이론들이 자신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합리화에 빠진 크리스찬 상담가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 심각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그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심사의 총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단원의 결말을 내린다.

우리는 본 서를 통하여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거나 또 실제로 이 분야에 일하고 있는 상담가나 심리치료가들도 ‘이론적인 종합화주의’에 입각한 어떤 한 개인적인 이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서에 대한 더욱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대한 심리학의 이론을 본 서 만큼 균형있게 섭렵하여 서술한 책이 드물기 때문이며, 바로 이 부분이 본 서의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서에서 저자들은 많은 비전공자들에게도, 그리고 타학문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읽혀지기를 원하지만, 책 전체

의 내용을 볼 때 독자층은 심리학의 이론과 이론 주창자들의 기본 가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전공자들에게 국한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서는 크리스찬 상담가, 심리치료를 비롯하여 심리학의 입문과정에 들어선 학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학문적, 직업적 소명의식을 돌아보게 해 주는 소중한 책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나라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적 신앙에 확실한 기초를 세운, 그러면서 ‘이론적 종합주의’에 입각한 이론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 배영태 ■

1959년 안동 출생, 대구대 심리학과 졸업, 계명대학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전공, 현 경북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부장, 안동대, 상지전문대 출강, 안동서문교회 출석